

대행 스님



# 모든 행이 그대로 보살행으로 여여하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분별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거름이 되기도 하고 진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마음에 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생각나는 건 모두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생각대로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을 건지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다 건져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져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도 벗어질 수가 없어서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이 그대로 보살행으로 여여하게 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미신의 짓을 하면서 행을 똑바로 못 하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질서도 정연하고, 계율도 일체 다 지킬 수 있고, 시간도 지킬 수 있고, 말도 법으로서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의와 의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권을 얻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바다를 가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젖는 것이 있죠? 그 물은 얼음도 될 수 있고 다시 물도 될 수 있고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자 진리이자 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으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시고, 파도가 일면 아휴, 또 망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참선이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든 것을 놓는 데서 나도 없고 분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별을 놓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를 놓지 못한다면 일체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망상이고, 보는 대로 망상이 쉰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없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건 뭐며 망상이 가라앉는 건 뭡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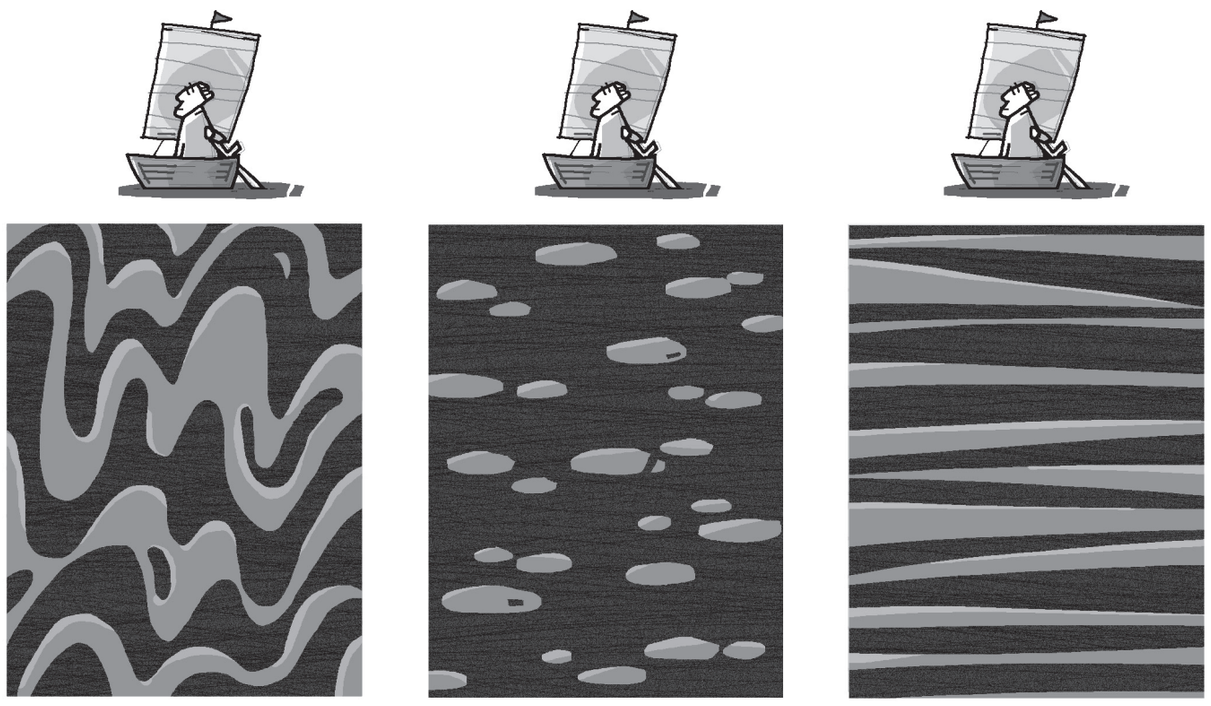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고(苦)도 없고 멸(滅)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건데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마시고, 남의 소리 듣고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난 게 태초요, 내 몸뚱이가 난 것이 바로 화두요, 그리고 내 몸뚱이가 난 것이 진리요, 상대와 모든 일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음은 어떠한 개별적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한데 합쳐진 것이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같이 들리는 거, 그거를 실천궁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고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고집한다면 언제 인간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심법행이라고 알고 불심을 바로 무심종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심법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열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로따로 분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생을 하시고 병고에 휘달리고 부적을 벼개 안에다 넣고 온통 붙이고 자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신 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김 진사댁이라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당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삼 대째 내내 아들 하나밖에는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독자도 그냥 끊어졌습니다, 나이 오십이 가까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항상 불공을 드리러 부처님 앞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불공드리러 다니다 다니다 어느 절엘 가니까 그 절의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직껏 다녀도 다닌 사이가 없고 여직껏 불공을 드려도 불공드린 사이가 없어. 그러니 오늘부터 진짜 불공을 드려라."

바로 지금으로 치면 자력 신앙을 믿어라 이거죠. "일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체 거기다 놓고, 생남을 못 하는 것도 손이 끊긴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맡겨 놓아라.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너한테 이익이 있고 생남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먼데로 찾아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항상 너희 안방도 법당인 줄 알라." 하시더랍니다. "하물며 너희 안방뿐이겠느냐. 변소까지도 법당이니라. 네가 변소 안에 있으면 그게 법당이니라." 그러시더랍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던 끝에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돼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는 50이 넘고 하나는 50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는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귀하게 열서너 살까지 길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병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옴쭉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려 넘어가려 하니 그냥 울고 법석들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목탁을 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지금 도련님이 다 죽게 돼서 난가가 됐는데 바깥에서 목탁을 치는 중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곤 머슴이 달려 나오니까, 그 스님은 머슴한테 말입니다, 아주 각별히 "안녕하십니까?" 하며 아주 코가 땅에 가 닿도록 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어떤 놈이냐?" 하던 그 머슴 놈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여직껏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존대 받아 본 예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너무 고마워 거기서 그냥 털석 주저앉아서 엎드렸습니다. "세상에, 스님 같은 분이 세상천지에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날까지 이렇게 늙도록 한 번도, 하다못해 애들한테까지도 존대를 못 받아 봤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감화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극진히 모시고는 안에 대감마님한테 가서 고했습니다. "여기 달같이 밝고 지혜 있는 그런 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 스님이라면 도련님을 낫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서 고했습니다. 그러니깐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급하니까 말입니다. 급하면 다 그러시죠. 평소에는 가만히 웃고 즐기다가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고할 줄도 모르다가도 아, 그냥 급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급하다고 그러니 그때는 이미 차는 지나갔죠. 요런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허허허.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애가 낫는다면 내게 주겠느냐?" 하고요. "이 애는 부처님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줬어. 그러니 병이 낫게 되면 내게 주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